

# 한 국 관 광 공 사

## 제 2회 이사회 결과

1. 일 시 : 2007. 2. 23(금) 10:30

2. 장 소 : 16층 회의실

3. 결 과

(심 의 안건)

◎ 2006년 결산(안) : 원안의결

◎ 이익잉여금 처분(안) : 주주총회 승인 조건부 의결

◎ 2007년 운영계획(안) : 원안의결

4. 참석현황 : 재적 이사( 9명), 출석 이사( 9명)

이 사 김 지 상	이 사 신 진 기	이 사 도 영 심	이 사 정 의 선	이 사 김 향 숙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사 장 김 종 민	부사장/투자개발본부장 강 광 호	혁신경영본부장 최 갑 열	관광마케팅본부장 홍 주 민	감 사 강 영 추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제 2회 이사회 의사록

2007. 2. 23(금) 10:30

한 국 관 광 공 사

## 2007년도 제 2회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07. 2. 23(금) 10:30

2. 장 소 : 16층 회의실

3. 안 건

(심 의 안 건)

◎ 2006년 결산(안) : 원안의결

◎ 이익잉여금 처분(안) : 주주총회 승인 조건부 의결

◎ 2007년 운영계획(안) : 원안의결

4. 재적 이사 : 9명

5. 출석 이사 : 9명

6. 참 석 자

사 장 김 종 민	이 사 김 지 상
-----------	-----------

감 사 강 영 추	이 사 신 진 기
-----------	-----------

이 사 강 광 호	이 사 도 영 심
-----------	-----------

이 사 최 갑 열	이 사 정 의 선
-----------	-----------

이 사 홍 주 민	이 사 김 향 숙
-----------	-----------

7. 의 사 록 : 붙임

의 장 : 지금부터 이사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2007년도 제 2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먼저 지난 제 1회 이사회 안건인 2007년 관광진흥개발 기금예산 확정 보고, 2007 한국관광총회 및 ASTA 제주 총회 개최 보고, 중국 광주 코리아프라자 개소 결과 보고, 금강산 투자자산 개보수 계획(안) 보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다)

의 장 : 방금 마친 제 1회 이사회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이견 없음을 확인)

의 장 : 이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3건의 심의안건으로 2006년 결산(안), 이익잉여금 처분(안), 2007년 운영계획(안) 등입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 결산(안)에 대하여 재정팀장이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경팀장 사전설명하다)

의 장 : 방금 설명 드린 2006년 결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상 이사 : 이 자리에서 지난해의 결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작년도의 경영활동 및 예산집행 실적을 되돌아 보고 향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부문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재확인해 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재작년보다는 각 부문별로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니 안정성이나 수익성, 그리고 생산성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동성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이유는 유동부채의 증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단기차입금이 220억원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차입금 감소는 단기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의미인데 그 채원은 어떻게 마련한 것입니까?

재경팀장 : 주로 면세점 수익금과 제주중문단지 토지 분양으로 인한 자금유입이 250억원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220억원을 단기차입금 상환에 충당한 것입니다.

김지상 이사 : 유동성부채 상황이 나빠진 것은 일시적인 현상  
입니까?

재경팀장 : 예 그렇습니다.

김지상 이사 :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유동부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유동성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보니  
생산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에 보니  
까 노동생산성은 좋아졌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상  
시 종업원 수가 7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정원 대 현원 대비표를 보면 2006년도 현원이 741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경팀장 : 상시종업원은 정규직과 1년 이상의 계약직 직원을  
포함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적으로 매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 수를 모두 합해서 계산한  
평균치입니다.

김지상 이사 : 노동생산성도 상당히 좋아졌고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지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인건비가 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  
와 있습니다. 급여 계정을 변경해서 잡급직원 급여  
항목을 별도로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

니까 인건비의 상여금 등 급여 감소로 인해 12억여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온 20  
억원 증가와 뒤에 나온 12억여원 감소분에 대해 설  
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팀장 : 2005년도에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비정규직  
급여를 지급수수료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  
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잡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년도와 비교를 하게 되  
니까 지급수수료와 잡급의 차이가 20억원 정도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적용  
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상 이사 :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 부분을 보면 지분법 평가  
손실 미발생, 김포면세점 지급위약배상금 감소  
등으로 인해 7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  
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재경팀장 : 예 그렇습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6년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안)에 대해 역시 재경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경팀장 제안설명하다)

의 장 : 방금 설명 드린 이익잉여금 처분(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재경부 배당금이 작년에는 투자액 대비 1%였고, 올해는 6.5%를 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경부에서는 현재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재경팀장 : 재경부에서는 당기순이익의 30%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자액에 대비하여 환산하면 배당률은 17.5%정도 수준이 됩니다. 6.5%은 당초 가결산 시점에서 공사의 경영여건 및 신규사업 추진 등을 감안하여 재경부와 협의해오던 배당률이었습니다. 현재 공사의 경영여건과 정부시책과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데 다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향숙 이사 : 지금 재경부에서 당기순이익의 30% 수준을 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기관들에 대한 요구 수준은 어떻습니까?



재경팀장 : 정확한 수치는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재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기관들에 대한 요구수준도  
공사와 비슷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선 이사 : 배당금에 있어서 배당률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최갑열 이사 :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당률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은 최저 30%, 최고 50% 수준입니다. 공사는  
재정부에 금년 1월 중순경 가결산에 의한 추정 당  
기순이익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때 재정부에 보고  
한 추정 당기순이익은 138억원이었으며, 6.5% 배  
당률에 대해 재정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종 당기순이익이 189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결산에 따른 추정 당기순이익과 최종 당  
기순이익이 51억원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재정부는 다시 최종 당기순이익에 따라서 배  
당률을 재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지상 이사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정책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라 하더라  
도 가능한 최대의 영업실적을 내서 대주주인 정부  
에 이익배당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요구도 정당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적립금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까지의 누계액이 2,720억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본금에 합산하여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도 너무 우리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대주주인 정부의 입장을 필요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진기 이사 : 그런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6조와 공사 정관 35조에 의하면 이익 잉여금 처분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대주주와 배당률을 협의할 수는 있겠지만 정관에 의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이상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재경팀장 : 대주주와 사전 조율을 통해 배당률을 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당률은 이사회 의결사항이지만 정관에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재경부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진기 이사 : 잉여금 처분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주주총회에 있다는 결론입니까?

재경팀장 : 예 그렇습니다.

신진기 이사 : 결국 주주배당에 관한 최종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사회에서 굳이 확정 의결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경팀장 :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단서로 한 조건부 의결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진기 이사 :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에서도 기본 원칙은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김향숙 이사 : 최종 조율이 남은 상태이지만 이사회에서도 의견을 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5%에 대한 논리를 확실하게 갖추어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신진기 이사 : 결국 조건부 의결로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익잉여금 처분(안)은 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배당률 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 개최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2007년 운영계획(안)에 대해 예산팀장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제안 설명하다)

의 장 : 방금 설명 드린 2007년 운영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심 이사 : 공사가 외래객 유치목표를 2007년에 700만명, 2010년에는 1천만명으로 설정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2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 연구결과 등과는 다른 저의 일상 경험을 통해서 접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관광의 가격경쟁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어불편에 관

한 것입니다. 그중 언어문제는 빠른 기간 내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격경쟁력 강화 문제는 공사가 앞장서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내나라여행박람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짧은 기간이었음에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적 관광박람회로 빨리 자리를 잡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노력과 투자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외국인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손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손님을 묵게 하지 않고 시내 호텔, 특히 특급 호텔에서 묵게 한다면 자기는 한명도 제대로 맞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호텔비가 비싸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마시는 오렌지쥬스 한잔이 1만원을 훨씬 넘는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렌지쥬스나 커피값 같이 관광객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것부터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과 투자에 대한 결과가 허탈감밖에는 남는 것이 없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의 장 :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지상 이사 : 운영계획(안)은 이미 논의하여 확정된 예산안을 분기별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것인가를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보다는 외래관광객 700만명 유치라는 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호텔에서 구입하는 모든 비품은 컵 하나라도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으로 인해 가격을 낮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과감하게 세금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래관광객 700만명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일본과 중화권 지역의 집중 광고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 증액분도 여기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 서울시에서 관광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더군요. 내용을 읽어 보니 중저가 호텔 세제 지원, 관광공사에서 추진중인 중저가 호텔 체인화 사업 참여, 재산세 공공요금 대폭 인하, 공무 목적으로 오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편의 제공, 연희동, 연남동, 대림동 일대 차이나타운 대폭 조성 등의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사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이와 관련,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등을 통해서 서울시의 관광객 유치 및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

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저가 호텔 체인화 사업 브랜드인 베니키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홍주민 이사 : 지금까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은 특급호텔 위주로 운영되어 숙박료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Good-stay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일반 숙박시설 들인 여관, 모텔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 경우에 Good-Stay 브랜드를 인증해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베니키아(BENIKEA)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1급에서 3급까지의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ENIKEA라는 브랜드는 “Best Night in Korea”에서 두문자를 조합하여 만든 브랜드 명칭입니다.

도영심 이사 :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 각종 토론에 관광 관련 교수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면 한국관광산업 진흥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렌지

주스 가격을 한 예로 말씀 드렸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문들에 대해 가격을 낮춰서 몇 가지 아이탬은 세계에서 공통으로 통하는 가격에 맞추어야 합니다. 호텔 등은 인건비 문제나 세금 관계로 가격인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관광공사가 앞장서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수용태세 개선활동도 함께 추진해야만 한국의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김지상 이사 : 앞서 언급된 서울시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의 장 : 서울시와 공사가 계속 협조하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010년 인바운드 1200만명 유치로 목표를 세제 개선 및 행정지도를 통한 여러 가지 개선 정책을 준비하면서 공사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서울시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영심 이사 : 서울시에서도 관광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자체 중에 관광공사를 설립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하는데, 이 전체와 공사가 유기적으로 일해 나가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 단체가 모두 컨벤션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의 코리아컨벤션뷰로를 축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여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세계육상경기대회를,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을,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자 노력하고 있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같은 분야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다 보니 외부 시각에서 볼 때 우리에게 힘이 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컨벤션 분야도 같은 맥락에서 다소 우려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관광공사가 중재 역할을 잘하여 컨벤션 분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의 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업 추진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상 이사 : 경상비를 올해에는 7억1천5백만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는 얼마나 절감했습니까?

예산팀장 : 2006년에는 절감목표가 6억5천만원이었는데 11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김지상 이사 : 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 활성화를 위한 예산 10억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도영심 이사 :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이 스페인에서 대통령을 면담할 때에 언급했듯이 북한에서도 관광산업을 통한 빈곤퇴치 대책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6자회담도 타결되어 국제적인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 직후라 그런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호 이사 : 이 10억원에는 기존의 연구사업, 금강산, 백두산 관광사업 등 일부 지속사업과 그 밖의 몇 가지 신규 사업들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대북 사업들은 공사가 임의로 추진할 수는 없고, 통일부나 문화부, 국정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한 초안들은 잡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추진은 향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영심 이사 : 이 분야에 있어서 관광공사 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는 만큼 그 안이 그대로 채택되지 않겠습니까?

강광호 이사 :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노하우면에서는 공사가 실무나 정책적

접촉에 있어서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와 관련해서는 내년이 금강산 관광 10주년인 만큼 금강산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참가하는 포럼 등을 주최하여 관광이 어떻게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6자회담 이후의 역학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아젠다를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사장님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관광 관련 펀드를 조성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공사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영심 이사 : 내년 회의에 각국 관광장관 등 관광 유관인사들을 참가시켜서 이 행사가 되도록 자주 회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의 장 :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면서 실리도 챙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의 장 : (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

의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7년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타봉)

의 장 :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 2회 이사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 제 2항에 의거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 날인하다.

2007. 2. 23.

사 장 김 종 민

이 사 김 지 상

감 사 강 영 추

이 사 신 진 기

이 사 강 광 호

이 사 도 영 심

이 사 최 갑 열

이 사 정 의 선

이 사 홍 주 민

이 사 김 향 숙